

충북선 새마을호·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

의안 번호	458
----------	-----

제안년월일 : 1995. 4. 27.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주 문

- 충북선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를 각각 1일 1편씩 증편하여 오전, 오후로 운행토록 조치하여 줄것을 관계부처에 건의

2. 제안이유

- 우리도는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동서 및 남북교통의 요충임에도 충북선에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하지 않아 신속하고 안전한 고급열차의 이용을 바라는 다수의 도민 여망에 부응
- 우리도를 찾아오는 연간 1,837만명의 관광객과 증부권 신흥공업지역(청주, 진천, 충주, 음성, 제천등)에 있는 산업체에 무역상담차 오는 외국의 바이어(BUYER)에게 쾌적한 교통편의 제공
- 경부, 중앙, 태백선과 충북선 새마을호 운행을 연계하으로서 국가 기간철도의 효율을 높여 포화상태에 가까운 영동지역의 레저인구의 충북지역 분산을 통해 주말 및 공휴일의 고속도로(경부, 중부, 영동) 교통체증의 대폭완화 기대
- 우리도의 성장 잠재력(청주공항, 오송신도시, 청주신산업과학단지, 첨단보건의료과학단지)이 매우 높아 충북선의 새마을호 운행시 이용객이 매년 격증할 것으로 예상

3. 참고사항 : 없음

첨 부 :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 1부.

수신처 :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

국가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님께 충북 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선 열차운행과 관련한 우리지역의 여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도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동서간, 남북간 교통의 요충지일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유적이 많아 우리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연간 1,837만명이나 되고 있으며 특히 중부권 신흥공업지역인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제천등에 있는 산업체에 무역상담차 오는 외국의 바이어(BUYER)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한 분산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인접한 근접성으로 우리도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대단위 청주공업단지를 비롯한 21개 공업단지와 3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도내 3,067개 기업체가 유치되어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관계로 차량과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광역권을 중심으로 건설중인 청주국제공항, 오송신도시, 청주신산업과학단지, 첨단보건과학의료단지 조성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등 고등급 열차를 운행할 시 철도이용객이 매년 격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산업체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과의 교통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현재 청주와 서울간 운

행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1일 편도 276회 8,700명에 달하고 그밖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종류의 시외버스, 승용차, 화물차 등이 운행되고 있어 고속도로 및 국도는 주말은 물론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심화로 시간적, 물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충북선의 철도운행을 살펴보면 청주-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이 제천을 출발 청주를 경유 서울을 운행하는 통일호 열차가 1일 1회 뿐입니다. 더구나 1980년 충북선이 복선화 되었을 당시만 해도 1일 2회 운행되었음을 상기하면서 타시도 전노선에 고등급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때 정부의 철도정책이 충북 도민에 대하여 너무도 소외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충북선의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철도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속한 고등급 열차의 운행을 갈망하는 절대다수 도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경부, 중앙, 태백선과 충북선의 고등급 열차의 운행을 연계한다면 포화상태에 가까운 강원, 영동지역 레저인구의 충북지역 분산을 통하여 경부, 중부,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대폭 완화하게 될것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 기간산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철도운행의 수익성과 선로용량의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북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서 기복선화된 충북선의 활용도를 높여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를 각각 1일 1편씩 증편하여 오전, 오후로 운행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1995년 5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